



7월의 기도

1. 저희 DCEM이라는 선교단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2. 낮은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몸과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사역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땀방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또한 작은 만남 하나에도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주의 영광이 머물게 하옵소서.

3.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공의를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과 사랑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시고, 모든 결정 위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닌 연합을, 갈등이 아닌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겸손함과 청렴함으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시옵소서.

4. 저희가 감당하는 일 가운데 사랑의 동기가 살아있게 하옵시고 성실함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무더운 7월을 주님의 시원한 그늘 아래서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2)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영농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과 살상이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없는 자유가 보장되면 저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체도와 사회조직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운영하는 인간의 정신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고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이 개인을 점령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을 점령하면 가정이 망하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과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정신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한, 그들의 삶에는 거센 풍랑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에는 산 넘어 산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거친 풍파에 부딪쳐 파선되어 가고 있다면 나라와 이웃과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배를 운행하고 있는 자신의 정신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잘된 이후라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ul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DCEM 2006년 해외성회



일본 오사카에서 일천만 구령을 위하여 2006년 3월에 개최한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을 회고해 보고자 한다. 본 성회는 일본 일천만 구령의 기치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해마다 일본의 중심 도시에서 개최되어온 성회로, '플가스펠교단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인 성회를 개최하자'는 조용기 목사의 의견에 따라 1996년 첫 페스티벌을 열어 일본 일천만 구령의 기치를 다져온 성회다.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주최하고 NRA(일본리바이벌동맹)와 오사카 순복음교회의 후원 속에 열린 본 성회는 일본 복음화를 위한 기수로 힘써온 플가스펠교단을 비롯해 KMA(제일한국기독교선교사연합회) 소속 1백여명의 목회자들도 함께 동참해 명실상부한 일본 최대 개신교 집회로 기록됐다.

3월 21일 아мага사키시 종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2006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에는 4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1978년 조용기 목사가 주창한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이 플가스펠교단만의 복음사역을 탈피해 교파를 초월, 일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령운동으로 점차 확대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성회였다.

지저스 페스티벌 사상 초유의 관심을 모았던 '2006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은 플가스펠교회와 일본 현지교회 젊은이들간의 찬양 경연대회인 '1부 가스펠 콰이어 콘테스트'와 말씀이 선포되는 '2부 은혜의 시간'으로 각각 나누어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아мага사키시 종합문화센터를 가득 메운 4천여 명의 성



도들은 일제히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흔들며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성회를 시작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본문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설교를 하였으며 통역으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가 통역했다.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했다. 조 목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기쁨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를 마쳤다.

한편 DCEM과 오사카순복음교회는 성공적인 성회를 위하여 간사이 지역 일대에 무려 3만여 장의 성회 포스터를 인쇄, 배부했으며 4천장의 입장권은 성회 개최 2주전 이미 동이 난 상태였다. 성회가 진행되자 아мага사키시 종합문화센터 인근은 뒤늦게 입장하기 위해 찾아든 성도들로 인해 초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성회의 안전을 위하여 1층과 2층 복도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하여 예배를 드러야만 했다. 이렇게 '2006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은 DCEM을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뿜어낸 일본 최대 개신교 집회라는 평가를 얻게 된 성회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 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 (왕하 6:14-23)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엘리사는 적군에 포위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도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육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매일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의 세력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3.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광야의 울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시편 102편 6절~7절)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장 10절)”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짙 들어차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한 마음으로 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같이 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

함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지키고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던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적국의 수도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은 없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딱힌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크고 적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수 있을까요?

1.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 관계였는데 아람이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군대를 보내어 수비했기 때문에 늘 아람 왕이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 하게 되자 화가 난 아람 왕에게 한 신하가 와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은 바로 엘리사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즉시 엘리사를 잡아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군대를 총동원하여 밤새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날이 밝으면 총공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 초풍을 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달려가 보고합니다. “주인님, 큰 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라는 불화살을 쏘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14

사람을 낚는 천국의 어부



니 두말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상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낚시 밥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여러가지 경험과 인생의 낚시 밥과 현신의 낚시 밥을 사용해서 천국 백성으로 낚아야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 4:18~22)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을 베푸는 구주가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일대를 다니시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행적을 다 보았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고 감동을 느끼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과 순종만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재산도, 가족도 등지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 4:23-25)

본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가 운데와 계시므로 지금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사역에는 반드시 이 세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병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2:9)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상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